

GROUP EXHIBITION

PAR

LEE JAEHEON

HA JIHOON

HONG SEONGJOON

KIM HYEREE

01/12 — 02/12

AXIS

SPACE  
ART  
HOHWA

ART SPACE HOHWA

+82 2 6337 7300 INFO@ASHH.KR ARTSPACEHOHWA.COM  
(04520) KOREA PRESS CENTER, 12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PAR

아트스페이스 호화의 신년 기획전 《PARAXIS》는 각자의 회화적 언어로 재구성한 실제적 대상(인물, 풍경)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이 혼재하는 환상적 화면으로 구축하는 4인의 작업을 조명한다. 이들이 표현한 경계적 회화는 현존하지 않는 이세계(異世界)의 것을 구현하지도, 눈 앞의 대상을 온전히 재현하지도 않는다. 다만 현실을 기반으로 하나 그 곳에서 튕겨져 나온, 혹은 가리워진 존재들을 각각의 화법으로 불러낸다. 그리하여 그 존재들은 매혹적인 화면으로 전개되어 억압된 욕망과 기억을 가시화하며 세계의 이면을 들춰낸다. 《PARAXIS》는 현실과 환상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중간지대의 형상들을 그린 김혜리, 이재현, 하지훈, 홍성준의 작업을 한 데 전시하며, 이들이 표현한 환상적 이미지들이 어떻게 세계와 전유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혜리는 이발소 그림이나 풍수 미술품, 선물 등에 이용되는 상업미술 이미지를 채집하고 뒤섞어서 재구성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대리만족감을 주는 한편, 기존에 향유되던 고전 미술을 대중화한 장르라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상실을 수반하기도 한다. 잘 그린 제도권과 비제도권 그림들은 기존의 맥락에서 오려짐과 동시에 엉뚱한 맥락에 얹혀져 익숙함과 기이함을 자아내며, 김혜리의 그림을 주시하게 만든다. 작가는 하위호환된 이상적 미술 이미지를 새로운 문맥의 모방과 재현으로 조형화함으로써 동시대의 욕망에 대해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재현은 그리고 다시 지우는 붓질로 선명함과 흐릿함을 오가며, 실체가 불분명한 익명의 인간과 시계열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을 그린다. 인물의 얼굴은 뿌영과 얇게 표현한 반면, 꽃으로 읽히는 도상들은 매우 도직한 질감으로 선명하게 그려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체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 작가는 이렇게 상반된 묘법과 질감의 충돌에서 비롯된 모호한 구상 회화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상충하는 욕망들을 가시화하며, 언어로 대체불가능한 독자적인 그림의 세계를 묵묵히 천착한다.

하지훈은 물감을 소조하듯 커커이 쌓아 올려 어렴풋한 기억 속 풍경을 신비로운 괴석의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작가는 유년시절부터 빈번한 이주로 인해 여러 도시를 경험했으며, 풍경은 그에게 영원하면서도 변화무쌍한 테마였다. 그는 과거 풍경에 대한 느낌을 총체적으로 축조하기 위해 색과 위치를 고심하여 지정한 뒤 붓, 혹은 도구없이 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짙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나는 듯한 하지훈의 초현실적 덩어리들은 과거 풍경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감각적 인상을 하나의 상으로 응축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홍성준은 그리는 행위와 재료의 물성, 그리고 재현이라는 전통적 방법론을 변주하여 회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는 주로 직접 찍은 풍경 이미지를 낱장의 층위로 분절하여 그것들을 또 다른 색면 레이어와 포개듯이 그려낸다. 정교하게 세공된 재현의 영역과 그것을 상쇄하는 색면의 층위는 한 화면 안에서 충돌하며 실재와 환영을 동시에 소환한다. 작가는 스스로의 작업에 주석을 붙이지 않고 회화 매체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동력삼아 지침없이 전진한다.

전시명 ‘PARAXIS(점근축)’는 광학용어로 렌즈와 대상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공간을 뜻한다. 렌즈의 정중앙을 통과하는 한 줄기의 빛 이외에 그 결을 근소한 차이로 비껴가는 수많은 빛들이 번지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다. 이곳에선 실재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발생하지만, 엄연히 현실의 존재와는 다르다. 즉, 실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실재와는 다른 모호한 장소인 것이다. 환상 문학 연구자인 로지 색슨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나 현실과 괴리된 점근축의 이러한 경계적 상태를 ‘환상이 출몰하는 장소’로 비유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은폐되어진 것들이 폭로되고, 현실과의 충돌로 인해 낯설고 이질적인 감흥을 유발하여 기존의 규율을 뒤집고 시각을 개방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 또한 실재적인 것과 비실재적인 것, 그리고 외부와 내부 세계를 부유하며 불분명한 위치에 놓여있는 형상을 그려 나간다. 전시 《PARAXIS》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침투하여 ‘숨겨진 세계’를 지금 이곳에 불러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낯은 실존에서 탈출해 세계에 대한 신선한 자극을 선사하고자 한다.



The New Year's exhibition of Art Space Hohwa, 《PARAXIS》 sheds light on the work of four artists who construct a fantasy screen in which the reality and unreality coexist through actual objects – people and landscapes – reconstructed in their own pictorial language. Their borderline paintings do not embody things from a different world that do not exist, nor fully reproduce the objects in front of them. With their own drawing techniques, the four artists call out the hidden beings or those that have bounced out of the reality. Thus, those beings unfold on a fascinating screen, visualizing suppressed desires and memories, and revealing the other side of the world. 《PARAXIS》 exhibits the artworks of Kim Hyeree, Lee Jae-heon, Ha Ji-hoon, and Hong Seong-joon, who drew shapes on a borderline crossing the realm of reality and fantasy to examine how the fantastic images expressed by them appropriate the world.

Kim Hyeree collects, mixes, and reconstructs commercial arts used in barbershop paintings, feng shui artworks, and gifts. These images give a sense of vicarious satisfaction. Meanwhile, they also accompany a sense of loss which comes from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popularized classical art that was previously enjoyed. Kim's well-drawn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paintings are cut out of the existing context and placed in the wrong context at the same time, creating familiarity and eccentricity, making viewers pay attention. She intends to ask ontological questions about contemporary desires by modeling backward-compatible ideal art images through imitation and reproduction in a new context.

Lee Jae-heon goes back and forth between sharpness and blurring with brushstrokes of erasing, drawing an anonymous human who is unclear and a mysterious space in which the time series are unknown. While the human faces are expressed hazy and thin, the icons that can be read as flowers are drawn clearly with a very thick texture, causing a gap in the general perception of reality. Lee visualizes the conflicting inner desires indescribable through ambiguous figurative paintings derived from the clash of conflicting techniques and textures, and silently explores his own world of painting that cannot be replaced by language.

Ha Ji-hoon builds layers of paint as if sculpting, reconstructing the landscape in a vague memory into the image of a mysterious, bizarre stone. He has experienced many cities due to frequent migration since his childhood. For him, the landscape has been an eternal and ever-changing theme. Ha painstakingly designates the colors and positions to build a sense of the scenery in his childhood as a whole, and then paints with his hands without a brush or tools. His surrealistic masses, which seem to glow quietly in the thick darknes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condensing various synesthetic impressions received from past landscapes into a single image.

Hong Seong-joon explores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painting by varying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painting, material properties, and representation. He divides the exclusive landscape images taken by himself into individual layers and draws them as if overlapping them with the other layers of color-field. The elaborately crafted realm of representation and the layers of the color-field that offset it collide within one screen, summoning simultaneously reality and illusion. Hong does not annotate his work, and advances without guidance, fueled by his curiosity and affection for the medium of painting.

The title of the exhibition, “PARAXIS,” is an optical term meaning a virtual space between the lens and the target where nothing exists. In this space, numerous lights that deviate by a slight difference spread, besides the single ray of light passing through the lens. Shadows of the real appear like ghosts, but they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beings. In other words, it is an ambiguous place that is closely connected to reality but different from it. Rosie Jackson, a researcher of fantastic literature, likened this borderline state of asymptotic axis, which is based on reality but separated from it, to “a place where fantasy appears.” According to her, in this place, the concealed things are exposed, and the collision with reality causes unfamiliar and heterogeneous inspiration, overturning the existing rules and opening the perspective. The artworks of this exhibition also depict the real and the unreal, as well as shapes placed in unclear positions floating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worlds. The exhibition 《PARAXIS》 crosses and penetrates the boundary between the fantasy and reality to bring the “hidden world” here and now. Through this, it will allow viewers to escape from the old existence and freshly realize the world.



# KIM HYE REE 김혜리

1989-

## 학력

201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석사 졸업  
2013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도예전공 졸업

## 개인전

2022 구름을 모아서,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2022 숲 속에 피어난 꽃, 갤러리 메일란, 서울  
2021 Illusion x Illusion, 룬트 갤러리, 서울  
2020 느슨하고 불투명한 경로, 아트스페이스 그로브, 서울  
2017 EVERYWHERE, NOWHERE, 갤러리도스, 서울  
2016 부유하는 이미지, 갤러리림, 서울

## 단체전

2022 열 개의 달과 세 개의 터널, 토탈미술관, 서울  
2022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들,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22 Arts, 서울클럽, 갤러리박영, 경기도  
2021 잠재화, 갤러리박영, 경기도  
2021 라온숨 개관전시, 갤러리라온숨, 경기도  
2020 러브송은 멈추지 않아, 문래예술공장 M30, 서울  
2020 영등포 아트뱅크, 여의도역, 서울  
2020 문래예술공장 재개관 2인전, 문래예술공장 M30,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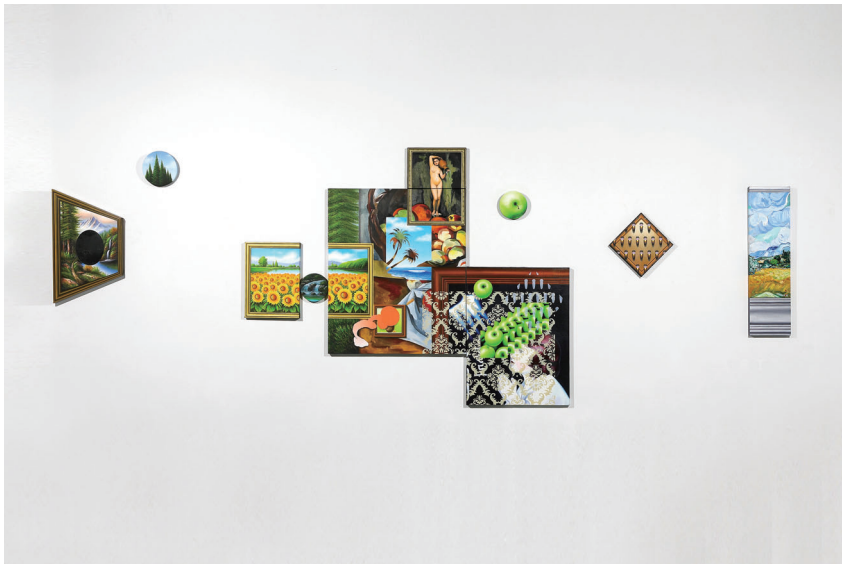
## 수상내역

2020 을지아트페어-프라이즈 선정작가상  
2020 BAF 청년작가 공모전 대상





환상적 환상  
oil on canvas, 112.1×162.2cm, 2020



Untitled illusion  
oil on canvas, pannel, variable size, 2020









세잔의 정물들

acrylic on canvas, 55×180cm, 2017



# LEE JAE HEON 이재현

1976-

## 학력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석사 졸업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졸업  
2003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 개인전

2022 하얀성, 갤러리SP, 서울  
2018 밤의 진공, 플레이스막, 서울  
2013 깊고 어두운 미소, 신갤러리, 뉴욕  
2010 Man on the moon, 갤러리조선, 서울  
2008 폭력의 역사, 신한갤러리, 서울  
2007 더러운 그림, 스톤앤워터, 안양

## 단체전

2022 하나이면서 셋, 누크갤러리, 서울 / 상징적인 방안에 들어기 기술, 챔버1965, 서울 /  
The Preview, 갤러리 SP, 서울  
2021 인 블룸, 하이트미술관, 서울 / One at a time, WESS, 서울  
2020 초상을 위한 습작. 공간연줄, 서울 / 우울한가요?, 서울대미술관, 서울  
2019 화가의 말, 플레이스막, 서울 / 픽 유어 픽,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서울 /  
리센트워크갤러리 프로젝트 II-일상에 예술을 포스팅하다, ACC 미디어 월, 광주  
2018 치열했던 여름이 남긴 고백, 디스위켄드룸, 서울 / 얼굴로부터, 2/w, 서울  
그 외 다수

## 수상 및 레지던시

2020 <화가의 말> 출간  
2019 다큐멘터리영화 <나의 정원> 영화제 상영  
2010 SeMA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 선정  
2008 난지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 작가(서울시립미술관)  
2007 석수시장 프로젝트-석수시장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안양)  
2006 SOMA Drawing Center, '아카이브' 작가 선정 (소마미술관, 서울)





검은 꽃

oil on canvas, 162×130cm, 2013





꽃밭 속의 형상

oil on canvas, 190×150cm, 2021





꽃밭

oil on canvas, 150×130cm, 2016









꽃밭

oil on canvas, 190×450cm, 2020-2021



## 1978

### 학력

2010 마이스터 솔러,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 (Prof. Michael van Ofen)

2009 아카데미 브리프,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

2003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 개인전

2022 common & uncommon, 윤선 갤러리, 대구

2020 풍경 구조,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19 색의 풍경, LGuplus 본사 사옥, 서울

2018 혼합풍경, 더트리니티갤러리(2인전), 서울

2017 풍경의 온도, 스페이스K 대구(2인전), 대구

2017 액팅아일, 카이스갤러리, 서울

2016 회화를 위한 소조, 대구미술관, 대구

그 외 다수

### 단체전

2022 소담소담, 윤선갤러리, 대구 / 풍경 변주, 인갤러리, 서울

2021 취향의 발견, 페이토 갤러리, 서울 / 장소의 기억, 슈퍼리어 갤러리, 서울 /  
from korean art DNA,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 이화익 갤러리 20주년 기념전, 이화익 갤러리, 서울  
세상의 모든 드로잉, 아터테인 갤러리, 서울

2020 Balanced vol.2, 비트리 갤러리, 서울 / 황금 삼각지대, 아터테인 갤러리, 서울  
원웨이라이프, 토탈미술관, 서울 / 당신 속의 마법, 대구미술관, 대구 /  
순정5-태도와 화법, 호반아트리움, 서울

그 외 다수

### 수상내역

2014 대구미술관 Y Artist Project

2014 신한은행 영아티스트 페스타, 신한갤러리 광화문

2014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2009 금호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금호미술관

2010 2012금호창작스튜디오, 금호미술관

2008 마인즈 아이젠투엄 미술상, 마인즈





Gemstone isle#1(Mont Blanc)  
acrylic, oil on canvas, 205×205cm, 2022





Wildflower#19  
acrylic, oil on canvas, 33×24cm, 2021



Wildflower#20  
acrylic, oil on canvas, 33×24cm, 2021



Wildflower#23  
acrylic, oil on canvas, 33×24cm, 2021



Wildflower#24  
acrylic, oil on canvas, 33×24cm, 2021





Nightscape#26  
acrylic, oil on canvas, 73×61cm, 2021



1987

## 학력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1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2022 Gazing Between Layers, 갤러리 BHAK, 서울

2022 Flowing Layer, 파이프 갤러리, 서울

2020 Layers, 학교재 | 디자인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2019 코드 어게인스트 프레임, 라힘갤러리, 서울

2018 IMG 드라이브, 63아트, 서울

2014 라이프 비트윈 라인스, 에프앤아트 스페이스, 서울

그 외 다수

## 단체전

2022 다방, 갤러리 BHAK, 서울 / 관계망: CONNECTWORKING, 서정아트센터, 서울 /

사유의 베일, 일우스페이스, 서울 / Hi! LIGHT - 빛, 예술을 만났을때, 구하우스 미술관, 서울 /

심연의 탐색, 라힘갤러리, 서울

2021 P는 그림을 걸었다 d/p 기획지원프로그램 12, d/p 낙원상가, 서울 / pr,op:studio popup, Hall 1, 서울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 청주 / The Blue, Kara's Gallery, 서울

2020 RE-SEARCH, 서울교육대학교 샘 미술관, 서울 / 여행, ANCgallery, 서울

2019 하이퍼 살롱,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 예술로 함께로, 공갤러리, 일산 /

사이드비, 가고시포 갤러리, 서울 / 홀리데이 이미지, 에프앤아트 스페이스, 서울 /

플롭스 인 아트 프로젝트: 윈도우스크린, 정샘물 플롭스, 서울

그 외 다수

## 수상내역

2020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공모수상





Study Layers 40  
acrylic on canvas, 201×201cm, 2022





Study Layers 55  
acrylic on canvas, 91 × 65.3cm, 2022



Study Layers 56  
acrylic on canvas, 91 × 65.3cm, 2022





Study Layers 63  
acrylic on canvas, 145.5×112.2cm, 2023



# PARAXIS

GROUP EXHIBITION

KIM HYEREE   LEE JAEHEON   HA JIHOON   HONG SEONGJOON

**01/12 — 02/12**

주최   호반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호화

참여작가   김혜리, 이재현, 하지훈, 홍성준

디자인   N.VGC







